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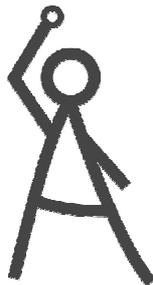
“대전 강제학습 섣다운! 내 시간을 돌려줘”

---

〈대전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_2014〉  
결과 발표 및 항의민원 접수 기자회견

---

- 일시: 2015년 1월9일 금요일 오후1시30분
- 장소: 대전광역시 교육청 (정문 앞)
- 주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주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전지역준비모임



**‘대전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_2014’ 결과 발표 및 항의민원 접수 기자회견**

# **진행 순서**

진행: 따이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 기자회견 소개

## ■ <대전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_2014> 결과 발표

- 조사 결과 발표: 공헌
- 학생제보 사례 소개: 청인
- 질의응답

## ■ 지지·촉구 발언

- 대전지역 청소년 발언: 유제민
- 대전지역 교사 발언: 지정배
- 청소년인권활동가 발언: 김경빈

## ■ 구호 제창

## ■ 기자회견문 낭독

## ■ 이후 활동계획 안내

## ■ 항의민원 제출 (교육청민원실 이동)

\* 관련 문의: 010-7270-1900 (따이루)

# 2014, 대전지역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일시 : 2015년 1월 9일  
주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 취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한국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시간을 줄이기 위한 <내 시간을 돌려줘! 학습시간 셋다운 프로젝트> 운동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전지역준비모임은 대전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학습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4년 1년간 ▲ 보충수업·자율학습 등 정규 학교수업 외의 학습을 강요받는 실태 ▲ 학원 등 사교육을 강요받는 실태에 대해 조사했다. 한국의 정규 학교수업 자체도 충분히 과중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밖에도 보충수업·방과후학교·자율학습·사교육 등의 형태로 학생들의 오후, 저녁, 휴일, 방학 시간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에서 보충수업·자율학습 등을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는 것은 교육청의 지침 등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대전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온 '강제학습'에 대해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세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이다.

설문조사는 오후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강제학습 뿐만 아니라 아침보충수업(소위 "0교시"), 아침자율학습, 점심시간자율학습 등의 형태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겨울방학 시기인 것을 고려하여 이번 겨울방학에 강제적으로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등을 강요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학교에서 학습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조건을 달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도 따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실을 더 세세하게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친권자(학부모, 보호자)에 의해서 학교나 사교육에서 학습을 강제당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보고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전지역준비모임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는 이번 조사를 더욱 보완하여 전국적인 강제학습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다.

# 1.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 집 단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조사기간	2014년 12월 16일~ 2015년 1월 4일
응답자수	336명
표본추출방법	온라인 및 대전시내 거리 임의 설문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 분석도구 : SPSS Statics 22

◎ 표본의 특성

		응답자수	%
전체		336	100%
학교	중학교	202	60.1%
	일반(인문)고등학교	84	25.0%
	특성화고등학교	29	8.6%
	자율형고등학교	17	5.1%
	특수목적고등학교	4	1.2%
집단 합계		336	100.0%
중학생/고등학생	중학생	202	60.1%
	고등학생	134	39.9%
집단 합계		336	100.0%
설립	공립	231	68.8%
	사립	103	30.7%
	무응답	2	0.6%
집단 합계		336	100.0%
학교 소재 지역	대덕구	43	12.8%
	동구	65	19.3%
	서구	59	17.7%
	유성구	59	17.6%
	중구	108	32.1%
	무응답	2	0.6%
집단 합계		336	100.0%

※ 336명 표본 기준, 신뢰수준 95%에서 오차범위 ±5.3%

## 2. 조사 결과

※ 문항별 무응답자는 결측 처리하여 총계에서 제외됨.

### (1) 중고등학생 61.4%에겐 사라진 방학

“이번 겨울방학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은 적이 있나요?”		
	응답수	%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 참여시킨다	125	37.4%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학원수강, 교사면담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한다	72	21.6%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한다	8	2.4%
자유롭게 참여/불참할 수 있다	94	28.1%
시행하지 않는다	35	10.5%
총계	334	100%

설문에 참여한 중고등학생 중 61.4%는 이번 겨울방학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강요를 받았다고 답했다. 37.4%의 설문참여자(학생)는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 참여를 시킨다고 답했다. 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것이 매우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방학 중에도 등교하여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방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7~10일 정도밖에 되지 않게 된다. 대전지역 중고등학생들 중 절반 이상에게 방학은 없고 몇 주 동안의 단축수업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겨울방학 보충.자율학습 강요 여부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 참여시킨다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학원수강, 교사면담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한다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한다	자유롭게 참여/불참할 수 있다	시행하지 않는다	총계
중학생	82 (40.8%)	23 (11.4%)	4 (2.0%)	62 (30.8%)	30 (14.9%)	201 (100%)
고등학생	43 (32.3%)	49 (36.8%)	4 (3.0%)	32 (24.1%)	5 (3.8%)	133 (100%)
전체	125 (37.4%)	72 (21.6%)	8 (2.4%)	94 (28.1%)	35 (10.5%)	334 (100%)

중고등학교로 나눠서 보면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강제학습이 더 심각했다. 중학생 중에는 절반 가량의 학생들이 이번 겨울방학 중 보충수업 또는 자율학습을 강요받고 있다고 답했으나, 고등학생 중에는 약 70%에 달했다.

특히 고등학교 중에서도 일반(인문계)고 학생 83명 중 32명은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로 시키고, 33명은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한다, 4명은 부모가 참여를 강요한다고 답해서 일반(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 80% 이상이 이번 겨울방학에 보충.자율학습 강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공부만 해야 하는 학생들.**

최근 1년 이내에,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이 강제로 시행되었는지 - 아침자율학습		
	응답수	%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 참여시킨다	144	44.7%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학원수강, 교사면담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한다	17	5.3%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한다	4	1.2%
자유롭게 참여/불참할 수 있다	27	8.4%
시행하지 않는다	130	40.4%
총계	322	100%

최근 1년 이내에,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이 강제로 시행되었는지 - 아침보충수업		
	응답수	%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 참여시킨다	68	21.3%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학원수강, 교사면담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한다	10	3.1%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한다	4	1.3%
자유롭게 참여/불참할 수 있다	26	8.2%
시행하지 않는다	211	66.1%
총계	319	100%

아침시간, 1교시 시작 전에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시키는 것은, 아침시간을 조려나 학급 정비, 수업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학습을 시키는 데 이용하는 것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30~40분씩 일찍 등교를 시켜서 자율학습 등을 시킨다. 아침자율학습 등의 경우에는, 시행한다면 강제로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참여자의 50%는 아침자율학습을 학교나 교사가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사실상 강제한다고 응답했다. 아침보충수업, 즉 소위 말하는 '0교시'를 강제로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도 24.4%에 이르러 4명 중 1명은 강제로 0교시를 하는 셈이다.

최근 1년 이내에,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이 강제로 시행되었는지 - 오후보충학습(방과후학교 포함)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 참여시킨다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학원수강, 교사면담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한다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한다	자유롭게 참여/불참할 수 있다	시행하지 않는다	총계
중학생	166 (83.8%)	16 (8.1%)	3 (1.5%)	9 (4.5%)	4 (2.0%)	198 (100%)
고등학생	74 (55.6%)	33 (24.8%)	3 (2.3%)	23 (17.3%)	0 (0.0%)	133 (100%)
전체	240 (72.5%)	49 (14.8%)	6 (1.8%)	32 (9.7%)	4 (1.2%)	331 (100%)

수업이 끝난 후 오후 시간, 많은 고등학교들에서 보충수업이 운영된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라는 이름이지만 일종의 보충수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오후 보충수업의 강제성은 매우 높았다. 89.1%의 중고등학생들이 오후 보충수업을 학교나 교사에 의해서이든 친권자에 의해서이든 강요받고 있다고 답했다. 오후 보충수업은 중학생의 경우 강요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중학생의 83.8%가 학교나 교사가 오후 보충수업에 무조건 강제 참여시킨다고 답했다. 사람들의 통념과는 달리, 중학교 역시 강제학습이 고등학교 못지않게 심했다. 대략 10명 중 8~9명의 중고등학생들이 강제로 오후 보충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6교시, 7교시가 아니라 사실상 오후 5시~7시까지도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학생들의 방과 후 여가시간 대부분을 빼앗긴다는 것이다.

최근 1년 이내에,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이 강제로 시행되었는지 - 점심시간 자율학습		
	응답수	%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 참여시킨다	36	11.3%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학원수강, 교사면담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한다	7	2.2%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한다	2	0.6%
자유롭게 참여/불참할 수 있다	48	15.0%
시행하지 않는다	226	70.8%
총계	319	100%

일부 학교에서는 그리 길지 않은 점심시간 중에도 학생들이 편히 쉴 수 없게 자율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에 이 문항을 설문조사에 포함시켰다. 설문참여자 중 70.8%는 점심시간 자율학습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14.1%는 점심시간 자율학습을 강요받고 있다고 답했다. 13.5%는 점심식사를 하고 쉴 수 있는 점심시간조차도 학교나 교사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학습을 강요받고 있었다. 자유롭게 참여나 불참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마음 편히 밥을 먹고 쉴 수 있도록 하려면 학교

에서 점심시간에 자율학습 등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참여 의사를 어떻게 묻나요?		
	응답수	%
학생의 의사를 묻지 않고 부모(친권자,보호자)의 의사만 묻는다	60	19.4%
부모(친권자,보호자)와 학생 본인의 의사를 함께 묻는다	114	36.9%
학생의 의사만 묻는다	34	11.0%
의사를 묻지 않고 강요한다	95	30.7%
기타	6	1.9%
총계	309	100%

이러한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참여 의사를 물을 때,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설문참여자 중 11%만이 학교에서 학생 당사자의 의사만 묻는다고 했다. 학생의 의사와 친권자의 의사를 함께 묻는다는 응답이 제일 많은 36.9%였고, 부모의 의사만 묻는다는 경우도 19.4%나 됐다. 사실상 학생의 의사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가 학습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부모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거나, 또는 보조적인 정도로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노골적으로 의사를 묻지 않고 강요한다는 경우가 30.7%에 이르렀고, 기타 의견 역시 형식적으로 참여의사를 묻지만 참여한다고 답하라고 강요한다는 응답자들이 대다수였다. 아예 학생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 (3) 학교와 학원에 빼앗긴 학생들의 밤과 주말

최근 1년 이내에,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이 강제로 시행되었는지 - 야간자율학습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 참여시킨다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학원수강, 교사면담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한다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한다	자유롭게 참여/불참할 수 있다	시행하지 않는다	총계
중학생	19 (9.9%)	2 (1.0%)	1 (0.5%)	26 (13.5%)	144 (75.0%)	192 (100%)
고등학생	52 (38.8%)	46 (34.3%)	3 (2.2%)	25 (18.7%)	8 (6.0%)	134 (100%)
전체	71 (21.8%)	48 (14.7%)	4 (1.2%)	51 (15.6%)	152 (46.6%)	326 (100%)

강제학습은 야간까지도 이어진다. 고등학생들 중 75.3%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참여한다고 답했고 그 중 대부분은 학교나 교사가 강요한다고 답했다. 자유롭게 참여/불참할 수 있다는 답은 18.7%에 불과했다. 아침에 강제로 자율학습 등을 한다는 학생들이 절반 가량이 되었는데, 야간까지 학습을 강요받는 학생들은 75%에 이른다. 즉, 대전의 고등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해가 뜰 무렵부터 해가 진 이후까지 강제로 학교에 갇혀서 공부만 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야간까지 학생들에게 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까지 악화시킬 가능성도 높다.

다수는 아니지만, 중학교에까지 야간자율학습이 시행되고, 또 강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약 11%의 중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참여한다고 답했으며, 25%의 중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고등학교에 비해 빈도가 적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하루 중 학원교습 또는 개인과외교습 일정이 끝나는 것은 몇시인가요?							
	저녁 8시 이전 (8시 포함)	저녁 8시 ~ 9시	저녁 9시 ~ 10시	저녁 10시 ~ 11시	저녁 11시 ~ 12시	밤 12시 이후	총계
중학생	38 (29.7%)	22 (17.2%)	39 (30.5%)	25 (19.5%)	4 (3.1%)	0 (0.0%)	128 (100%)
고등학생	5 (7.0%)	2 (2.8%)	13 (18.3%)	11 (15.5%)	29 (40.8%)	11 (15.5%)	71 (100%)
전체	43 (21.6%)	24 (12.1%)	52 (26.1%)	36 (18.1%)	33 (16.6%)	11 (5.5%)	199 (100%)
끝나는 시간 평균			중학생 (128)		19시 43분		
			고등학생 (71)		22시 44분		
			전체 (199)		20시 47분		

학생들의 밤 시간을 뺀 것은 학교만이 아니다. 최근 1년 동안 학원에 다니거나 개인과외교습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에게 학원교습 또는 개인과외교습 일정이 끝나는 시간을 물었다. (요일마다 다른 경우는 가장 늦은 날 기준으로 표시) 학생들이 답한 사교육 일정이 끝나는 시간의 평균은 밤 8시 47분으로 거의 9시에 가까웠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는 밤 10시 44분으로 매우 늦었다.

끝나는 시간의 분포는 중고등학생이 다소 달랐다. 고등학생들은 밤11시 이후, 자정 이전에 끝난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중학생들의 경우는 저녁 9시~11시 사이에 끝난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전의 학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중학생 밤 11시, 고등학생 밤 12시로 두고 있다.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법적 제한의 한계선까지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시교육 속에서 학생들이 한계까지 공부하게 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사교육 운영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인권과 행복을 고려하여 더 강력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조례에서 제한한 시간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게 존재했다.

최근 1년 이내에,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이 강제로 시행되었는지 - 주말자율학습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 참여시킨다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학원수강, 교사면담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한다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한다	자유롭게 참여/불참할 수 있다	시행하지 않는다	총계
중학생	13 (6.7%)	2 (1.0%)	1 (0.5%)	32 (16.6%)	145 (75.1%)	193 (100%)
고등학생	22 (17.3%)	19 (15.0%)	6 (4.7%)	40 (31.5%)	40 (31.5%)	127 (100%)
전체	35 (10.9%)	21 (6.6%)	7 (2.2%)	72 (22.5%)	185 (57.8%)	320 (100%)

최근 1년 이내에,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이 강제로 시행되었는지 - 주말보충학습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 참여시킨다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학원수강, 교사면담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한다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참여를 강요한다	자유롭게 참여/불참할 수 있다	시행하지 않는다	총계
중학생	14 (7.3%)	2 (1.0%)	1 (0.5%)	31 (16.1%)	145 (75.1%)	193 (100%)
고등학생	20 (15.6%)	11 (8.6%)	5 (3.9%)	35 (27.3%)	57 (44.5%)	128 (100%)
전체	34 (10.6%)	13 (4.0%)	6 (1.9%)	66 (20.6%)	202 (62.9%)	321 (100%)

주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시행하는 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차이가 컸다. 설문참여자 중 중학생들은 주말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75%였다. 그러나 약 8%의 중학생들은 강제로 주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등학교는 절반 가량이 주말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실시한다고 했고, 30% 안팎은 주말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5일제는 학생들의 등교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주말에도 학생들을 등교시켜서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사례는 주5일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최소한의 휴일까지 박탈하는 것이다. 고등학생 3~4명 중 1명은 사실상 주5일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4) 사교육 받는 학생 3명 중 1명, 본인은 원하지 않아**

최근 1년 이내에 학원교습 또는 개인과외교습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응답수	%
참여한 적 있다	214	64.3%
참여한 적 없다	119	35.7%
총계	333	100%

학원교습 또는 개인과외교습은 본인이 원해서 참여했나요?		
	응답수	%
내가 원해서 참여했다	141	66.5%
원하지 않지만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시켜서 참여했다	38	17.9%
원하지는 않지만 주변의 압박감 등 때문에 참여했다	30	14.2%
기타	3	1.4%
총계	212	100%

	학원교습 또는 개인과외교습은 본인이 원해서 참여했나요?				
	내가 원해서 참여했다	원하지 않지만 부모(친권자, 보호자)가 시켜서 참여했다	원하지는 않지만 주변의 압박감 등 때문에 참여했다	기타	총계
중학생	81 (60.0%)	30 (22.2%)	22 (16.3%)	2 (1.5%)	135 (100%)
고등학 생	60 (77.9%)	8 (10.4%)	8 (10.4%)	1 (1.3%)	77 (100%)
전체	141 (66.5%)	38 (17.9%)	30 (14.2%)	3 (1.4%)	212 (100%)

설문참여자 중 최근 1년 내에 학원교습 또는 개인과외교습 등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사람은 64.3%, 214명이었다. 이들 중에서, 사교육에 참여한 것이 본인이 원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물은 것에 대해 자신이 원해서 참여했다는 응답은 64.3%였다. 학생이 원하지 않음에도 참여한 경우가 1/3 가량인 것이다. 직접적으로 친권자가 시켜서 참여했다는 경우는 17.9%였다. 부모나 주변의 압박 등으로 사실상 강제학습을 당하는 경우가 사교육에서도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기타 응답에는 "주변 분위기에 따라", "변화하는 제도 때문에" 등의 응답이 나와서 이 역시 주변의 압박 때문에 참여했다는 것과 유사했다. 사교육에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참여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중학생의 경우 부모에 의해 강요를 당하기가 더 쉬운 상황에 놓여 있고, 고등학생이 되면 입시 등의 압박과 불안 때문에 스스로 성적 향상을 위해 사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학원에서 약속한 교습 시간 외에 추가로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응답수	%
자주 있다	39	18.4%
가끔 있다	80	37.7%
별로 없다	40	18.9%
전혀 없다	53	25.0%
총계	212	100%

학원에 다니는 중에도 학원에서 약속한 교습 시간 외에 추가로 공부를 시킨다는 응답이 생각보다 많았다. 학원에 다녔다는 설문참여자 중에는 절반 이상이 학원에서 약속한 시간 외에 추가로 공부를 시켰다고 답했다. 18.4%는 그런 일이 자주 있다고 답했다. 약속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공부를 시키는 것 역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강제 추가 학습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 (5) 사례

학교	사례
우송중학교	"강제로 방학 때 방과후 시키고 안한다고 하면은 방학이 끝나고 15주간 야간자율학습을 시킨대요.."
법동중학교	"방과후를 억지로 했습니다. 저희 의사를 한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정통신문엔 방과후 종류만 써서 내고 그중에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송촌중학교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선택란은 만들어두지만 무조건 다 하라고 시킨다. 안할수가 없다. 내가 알기론 아침 보충학습은 수학만 일정 점수 아래 학생들만 강제로 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것들은 2014년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서일고등학교	"저희 학교는 24명이 특별반이고 25등부터 50여등까지 EBS반이라고, 학교 교사들이 시간표를 계획해서 자신이 원해서 하는 애들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싶지도 않은 보충수업을 돈을 더 내면서까지 한다"
노은고등학교	"야자 아주 무식하게 합니다... 이 주변 인문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야자를 빼주는데 저희는 학원이고 뭐고 야자 빼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쉬는 것이 나올 거 같은 상황이어도 앉혀놓고 공부시킵니다. 야간자율학습도 강제로 시키면서 감독은 다른 학교보다 더 철저해서 책 읽는 것도 허용이 안 됩니다. 쉬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야자시간에 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설문을 통해 개선되는 점이 있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만년고등학교	"강제학습 만약 안한다고 하면 잘 안되라고 저주하는 등 막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인권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택권도요."
대전외국어 고등학교	"야간자율 학습은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수행평가를 해야 한다던지 교내 대회 준비를 따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무조건 교실에 앉아서 학습하기를 강요합니다. 야간 자율학습 3시간이 엄연히 보면 하루 중 학교일과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고 가장 의미 있게 쓰여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0시에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으로 가면 집이 먼 친구들은 11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침 7시 반까지 등교하고 밤늦게 까지 학교에 있다오면 너무 피곤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잠들 때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내주는 수행평가는 대체 언제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성여자 고등학교	"야자를 하지 않는 학생은 취업시 야자확인증을 통한 가산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함. 방과후학습 때 신청서를 전원 모두 꼭 '신청'으로 작성, 제출하라고 요구."
지족고등학교	"생활기록부로 협박"
호수돈여자 고등학교	"자습 선생님께 3~4번 사정해야 뺄 수 있음"

### ※ 기타

- (학원에서) "예식장에 가야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학원 나와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 (7) 결론

- ☞ **반쪽짜리 방학, 사라진 방학** : 현재 한국의 방학일수는 다른 OECD 주5일제 국가에 비해 짧은 편에 속하지만, 그 방학조차도 강제적인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으로 채워지고 있다. 설문참여한 대전 중고등학생 중 61.4%는 방학 중에도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대전지역 중고등학생들 중 절반 이상에게 방학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 관련 부처에서 방학 중에 학교가 학습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일수의 방학을 보장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 ☞ **아침부터 강요되는 학습, 등교시간 앞당기는 원인** : 대전에서 많은 중고등학생들(51.2%)이 아침 1교시 이전부터 정규 수업 시간 외의 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불필요하게 앞당기는 가장 큰 요인이다. 최근 대전에서도 9시로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9시 등교"는 단순히 등교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아침부터 강제학습을 시키는 관행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등교시간 문제를 학교장 자율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제적인 아침 자율학습 등을 단속함으로써 등교시간을 늦추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 ☞ **학생 의사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보충학습** : 설문참여자 89.1%가 학교, 교사, 친권자에 의해 학교 수업이 끝난 방과 후의 보충수업을 강요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수업이 사실상 매일 7, 8교시씩 이어진다는 것이다. '보충수업'이 아니라 또 다른 정규수업이 되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보충수업은 아예 참여의사를 묻지 않고 강요되거나, 묻더라도 친권자(학부모)의 의사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관행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너무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강요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확실한 금지 의사를 밝히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의 의사를 우선하여 존중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 ☞ **야간에도, 주말에도, 강제학습에 쉴 틈 없는 학생들** : 고등학생들은 야간과 주말에도 강제학습을 겪는 비율이 매우 높다. 75.3%는 학교 야간자율학습을 강요받으며 30% 안팎은 주말에도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평균 밤 8시 47분이 돼서야 학습 일과가 끝났고, 고등학생들은 평균 밤 10시 44분에 끝났다. 과연 하루 6시간이나 잘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하루 시간표다. 야간, 휴일 강제학습은 학생들의 최소한의 휴식권과 수면권, 건강권, 여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야간/주말 학습을 강요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의 경우 학원운영을 제한한 조례 상의 한계 시간까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야간 사교육을 더 이른 시간 기준으로,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 ☞ **갈수록 확산되고 강해지는 과잉 학습** : 과거에는 야간자율학습, 강제보충수업 등은 고등학교에 주로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대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중학교에서도 25%는 야간자율학습이 존재한다고 했으며 11%는 강요받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중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참여를 강요받는 경우는 고등학생보다 더 많았다. 입시를 위해 학습을 강요하는 것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생들은 사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도 보였다. 직접적으로 학습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교육환경 자체가 과잉 학습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공공연한 강제학습, 과중한 학습시간, 이제 셋다운!

대전의 중고등학생 절반은 1교시 시작 전부터 보충·자율학습을 하기 위해 해가 뜨지도 않은 이른 아침 일어나 등교한다. 중학생 10명 중 9명은 강제로 방과 후 수업을 들어야 하고, 고등학생 4명 중 3명은 강제로 야간자율학습까지 한 뒤 밤 9시, 10시가 넘어 추운 밤 공기를 맞으며 하교한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3명 중 1명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사교육에 참여하고, 사교육을 받는 고등학생들 중 반 이상은 밤 11시가 넘어서 학원이 끝난다. 10명 중 6명의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가서 보충·자율학습을 강제로 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대전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이다. 사실,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모습이기도 하다. 대전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전국 학생인권 실태 조사에서는 절반 넘는 학생이 보충·자율학습 등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했다. 애초에 한국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은 길고, 각종 공부 부담은 버겁고, 방학은 짧다. 거기에 더해 '보충수업'을 정규수업처럼 강요하고, '자율학습'을 타율적으로 시키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원 등 사교육까지 보태져, 많은 학생들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학교, 학원을 오가며 공부만 해야 하는 처지다.

혹시 밤늦은 시간까지 학교/학원에 불을 밝히고 공부하는 모습을 '기특해' 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기특한' 모습이 아니라, 한국의 학생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과잉 학습으로 내몰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풍경일 뿐이다. 학교가, 학원이, 교사가, 부모·보호자가 그리고 이 사회가 끝없이 공부를 강요하고, 휴식과 자유를 바라는 학생을 '게으른 학생'으로 낙인찍는다. 경쟁교육이 낳은 과잉학습 속에서 학생들의 휴식권, 수면권, 건강권, 교육권, 여가권 등의 인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처참한 현실 속에서, 대전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와 학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는 대전시교육청의 책임방기를 증명한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교육청의 책임을 물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학교에서 방학·학기 중 보충·자율학습 강요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관리감독하라.
1. 인권을 고려한 방향으로 학원조례를 개정하여 적어도 밤 10시보다 더 이전으로 학원 교습을 제한하고, 불법 심야 운영하는 학원 등을 단속하라.
1. 교육청 차원에서 9시 등교 시행,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비롯해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1. 대전지역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 강제학습 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길어도 너무 긴 한국 학생들의 학습시간, 이제는 줄여야 한다.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시간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더 이상 강제학습, 과중한 학습시간 문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방치되지 않도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행동에 나선다. 학생들의 빼앗긴 시간을 되찾기 위해 <학습시간 셋다운> 운동을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며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대전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정부·국회 등의 적극적인 응답을 기대한다.

2015년 1월 9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전지역준비모임

# 대전지역 학생 강제학습 설문조사 (201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는 <내 시간을 돌려줘 - 학습시간 섀다운 프로젝트>의 일부로, 대전지역 초·중·고등학생 대상 강제학습 설문조사를 합니다. 조사 결과는 강제학습 실태를 알리고 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 대상: 대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조사 기간: 2014년 12월 16일 ~ 2015년 1월 4일
- 문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전지역 준비모임 (카페: asunaro.or.kr | 전화&문자: 010-4074-5474)

\*조사 결과는 2015년 1월 9일에 발표 예정입니다.

## ① 조사 참여자의 기본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 분석을 위해 참여자의 정보를 묻는 것입니다. 익명조사이며,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입력해주세요.

### (1) 다니는 학교의 종류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일반(인문계)고등학교                      ④ 특성화고등학교  
⑤ 자율형고등학교                      ⑥ 특수목적고등학교                      ⑦ 기타 (                      )

### (2) 현재 재학 중인 학년

- ① 초등1학년                      ② 초등2학년                      ③ 초등3학년                      ④ 초등4학년                      ⑤ 초등5학년                      ⑥ 초등6학년  
⑦ 중1학년                      ⑧ 중2학년                      ⑨ 중3학년                      ⑩ 고1학년                      ⑪ 고2학년                      ⑫ 고3학년

### (3) 현재 다니는 학교의 이름

L                      학교

## ② 학교에서의 보충수업·자율학습 등의 강제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4) 최근 1년 이내에, 학교에서 다음 사항들이 강제로 시행되었는지 답해주세요. (해당하는 곳에 √표하세요.)

	① 학교나 교사가 무조건 강제 참여시킨다	② 불참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학원수강, 교사면담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강제한다	③ 부모(친권자,보호자)가 참여를 강요한다	④ 자유롭게 참여/불참할 수 있다	⑤ 시행하지 않는다
오후보충수업 (방과후학교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야간자율학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침자율학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침보충수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점심시간자율학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말/휴일 자율학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말/휴일 보충수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